

# 자기평가 적용에 따른 원격교육의 학습효과 증진

## Improvement of E-Learning Efficacy by Self-Assessment

전혜성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ye-Seong Jeon(hsjeon@iscu.ac.kr)

### 요약

본 논문의 목적은 원격교육의 정신보건사회복지교과에서 자기점검적 학습방식인 ‘자기평가’를 학습초기에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게 되는 학습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기평가란 학습초기에 자기점검 및 자기주도성을 강조하는 학습전략이고, 학습효과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 및 긍정적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대학에서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연구변인의 파악 및 검증을 위해 빈도분석, t-test, Paired t-test,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학습초기 자기평가를 실시한 학습자들이 비실시 학습자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학습내용을 수용하는 정서적 변화를 보였다. 긍정적 태도변화에서는 자기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비실시한 집단 모두 사전·사후 간의 유의미한 점수변화가 있었다. 상대적으로 자기평가의 실시집단이 비실시집단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변화를 보였으나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학습초기의 자기평가의 적용은 학습자들의 자기점검을 격려하여 학습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전략으로 제시되었다.

■ **중심어** : 자기평가 | 자기점검 | 학습효과 | 원격교육 |

### Abstract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efficacy of cyber education by self-assessment strategy. Self-assessment strategy contains self-monitoring function and self-control function. 202 students of online university attended and analyzed with frequency, correlation, t-test, Paired t-test.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The learners who experienced self-assessment in the initial stage of class had higher changes in social distance to the mentally disabled people positively than the learners who didn't experienced that. This self-assessment strategy can be assumed that it is effective strategy to improve e-learning efficacy and it will contribute to self-directed education for enhancement of on-line education.

■ **keyword** : on-line Learning | Self-Assessment | Learning Efficacy | Self-Monitoring |

## I. 서론

최근 원격교육의 교육적 유용성과 효용가치가 알려지면서 웹을 기반으로 하는 교수-학습 시스템에 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한 웹기반의 교수-학습 시스템은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방식을 지향하고 있는데[1], 그 중 학습자의 자기인식 및 자기점검에 기초한 자기평가는 이상적인 학습형태의 하나로

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 사실상, 자기주도학습은 획일적인 학교 교육의 확산 및 발전과 산업화 사회로의 변천과정에서 공급자 주도적인 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온 경향이 있으나 최근 이에 대한 중요성은 초·중·고·성인 교육의 전 연령과 계층을 초월하여 다시 부각되고 그 효용성이 주목받고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 요구를 규명하여 학습상황을 통제하려는 책임감도 갖게 하는 이점이 있다[2]. 바로 이러한 자기주도학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자기평가이다. 무엇보다 자기평가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수준이나 위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강점 및 취약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통찰은 자신이 향후 학습을 통해 중점을 두어 습득해야 할 지식이나 방향성에 대해 민감하게 인식하게 하고, 자신의 취약성 및 낮은 학습 준비도 상태에 대해 보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수립하게 한다. 현대와 같이, 지식 기반의 개방적 학습사회에서 이와 같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선별하여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3][4].

선행연구에서도 자기평가는 중요한 학습전략으로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5-7][4][8][9]. 이들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통점은 무엇보다 자기평가가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준비도, 성실성, 학습동기, 다른 학습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10]. 또한 자기평가는 대안적 평가 방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학습자가 평가에서 주체가 되므로 학습자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습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동기와 태도 등의 정의적 능력과 통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11].

이상과 같이, 학습자의 자기평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일환으로 매우 유용한 학습전략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일선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자기평가의 개념이 1970년대부터 제시되어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1990년 이후 꾸준히 연구되어 그 효용성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평가의 적용은 오프라인 교육에서만 한정 적용되어 왔을 뿐, 최근까지도 원격대학교의

이러닝 기반의 전공 교과목에서는 적용된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적용 효용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다. 사실상, 상대적으로 교수자 수에 비해 학생 수가 많은 온라인 교육에서 학생 스스로의 자기점검 및 자기주도의 기능이 더욱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기평가에 대한 개념 도입 및 적용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보건사회복지라는 온라인 수업에서 자기평가가 갖는 수업 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학습자에게 수업초기에 자기평가를 실험군에게는 실시 / 통제군에게는 비실시하여, 수업수강 전후에 따른 사전, 사후조사 결과를 확인하여 (자기평가 적용에 따른) 학습자의 정서적 변화 및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평가 적용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사전·사후변화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자기평가 적용에 따른) 실험군과 통제군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사전·사후변화차이는 어떠한가?

## II. 문헌고찰

### 1. 자기평가의 개념

자기평가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심리적 또는 행동적 특성의 크기나 수준을 감정 혹은 추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기평가는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 하는 평가로, 자신의 학습준비도 및 학습 전 자신의 정서 및 행동수준을 평가하는 학습과정이다. 이때 평가의 기준은 수업에서 교수자가 제시하는 구체화된 질문지로 이에 대해 학습자가 스스로 응답한 후, 그 결과에 따른 자신의 심리적·행동적 수준 및 특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수자가 제시한 관점이나 내용에 따라 자기 자신을 점검한 후, 자신에 대한 반성

적 사고와 함께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이를 향후 학습방향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계획 및 전략을 수립한다.

효과적인 자기학습을 위한 최근의 권고는, 학습의 자기평가와 반성 과정에 학생들을 좀 더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일생동안 독립적인 학습자가 되는 것을 돕는 것이 학교교육의 목적이라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에 대한 결정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적절한 판단력을 개발하기 위해 평가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배운 것의 소유자로 발전하기 위해 자기평가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학습방향성이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활동의 주체가 되게 하여 자신의 능력을 백분 활용하도록 하며 과제의 완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게 하여야 한다[12].

## 2. 자기평가의 기능

학생들이 자기평가의 기회를 가질 때 가장 큰 장점은 그들이 자율적인 학습 참여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를 관찰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증진 될 수 있다. 학습과정에서 학습자가 참여하는 것은 학습태도에 변화를 미칠 수 있고, 자신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에 따라 결국 자신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13].

또한 일반적으로 자기평가는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준비도, 성실성, 학습동기, 다른 학습자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고 반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된다[10]. 또한 자기평가는 대안적 평가 방식의 중요한 요소로서, 학습자가 학습초기에 자기 자신의 평가에서 주체가 되므로 학습자들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학습에 대한 인지적 능력을 동기와 태도 등의 정의적 능력과 통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11].

한편, 학습자 자신이 학습의 주체가 되는 자기평가 방법은 끊임없는 학습자의 참여와 교사의 격려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교수자는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논문은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2008년 3월에서 6월까지 시행되었다. 202부의 설문지가 수거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충분한 자료 2부를 제외시켜서 결과적으로 총 200부의 설문지가 분석되었다. 조사 대상자 중 85% 이상이 중장년기의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이어서 상당수의 학생이 장년기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격대학이 평생교육 차원에서 장년기인 성인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2. 연구설계

본 논문은 사전사후 측정을 하는 실험설계(pretest-posttest control group design)이다. 본 논문은 4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 수업 첫 주에 실험 및 통제집단의 학습자들에게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둘째, 그러한 사전평가 내용에 대해 실험군에게만 자기평가를 시행하고, 셋째, 두 집단 모두에게 13주 동안(중간, 기말고사 기간 제외) 주 1회씩 본 수업내용을 제공한 후, 넷째, 다시 두 집단 모두에게 사후조사를 시행하였으며, 다섯째, 마지막으로 두 집단의 수업효과를 비교·평가하는 것으로 설계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정신보건사회복지론'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들이고 수강생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이들 중 실험군과 통제군을 분류하였다. 실험군과 통제군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사전조사에 대한 설문지를 제출한 학생 중, 수강생 명단에서 홀수번은 실험군에, 짝수번은 통제군에 포함시켰다. 실험군의 학생들에게는 사전평가의 결과를 개별적으로 메일을 보내서 학습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식 수준,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 등에 대해 교수자가 피드백을 주고,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편견 및 점수 정도를 인식하고 자신에 대한 반성과 향후 학습을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격려하였다. 이후 학습계획을 교수에게 다시 답신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통제군의 학생들에게는 사전평가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단순히 학습을

독려하는 메일을 보냈다.

### 3. 측정도구

#### 3.1 사회적 거리감

일반인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Westie (1959)가 개발한 도구를 송관재 등 [14]이 번역하여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일반인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거리감을 '예' '아니오'로 응답하는 8문항과 주관적 친근성을 나타내는 5점 Likert type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1이었다.

#### 3.2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는 Taylor와 Dear(1981)가 개발한 Community Attitude Toward the Mentally Ill (CAMI)를 이주훈 등[15]이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CAMI는 권위주의(authoritarianism), 자비심(benevolence), 사회생활제한(social restrictiveness), 지역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의 4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의 Likert type의 총 4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4개의 하위요인 중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 지역정신보건의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개발 당시 본 도구의 신뢰도는 지역정신보건개념이 Cronbach's Alpha = 0.88이었다.

지역정신보건(community mental health ideology)의 기본 개념은 다음과 같다. 정신보건운동의 원리를 구체화하여 지역사회가 정신장애인과 접촉하는 것 등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정신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정신보건 시설이 지역 내 설치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견해이다.

### 4. 조사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SPSS 15.0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사전 동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t-test를 시행하였다. 학습자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긍정적인 태도의 관계는 실험 전, 후를 Paired t-test와 상관관계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본 연구가 1개 대학을 대상으로 임의 표집을 한 것으로 인한 대표성의 문제와 이에 따른 일반화의 한계이다.

## V. 연구결과

### 1. 일반적 특성

먼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전체 인원에 있어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대략 10%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격대학생의 전체 재학생 수 중 여성이 더 많은 것과 유사한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령분포에 있어서도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서 동일하게 30대, 40대가 가장 주류를 이루는 연령대로 나타났다. 실험집단에서는 30대가 43.0%, 40대가 22.0%, 50대 및 20대가 각각 17.0%와 16.0%로 나타났다. 직업 분포에서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판매/서비스직, 기능/생산직, 주부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실험집단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 23.0%, 기능/생산직이 30.0%, 전업주부가 23.0%이었고, 통제집단에서는 판매/서비스직이 29.0%, 기능/생산직이 26.0%, 전업주부가 20.0%로 나타났다. 이상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차이 검증 결과, 4개의 영역 모두에서 두 집단의 특성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본교생 전체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력 변인은 일반적 특성에서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월수입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실험집단에서는 그 중 200만원 이하(35.0%)와 200만원-300만원 미만(26.0%)의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통제집단에서는 200만원 이하(26.0%)와 200만원-300만원 미만(23.4%), 300만원-400만원 미만(24.0)의 빈도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실험집단 (n=100) 명(빈도,%)	통제집단 (n=100) 명(빈도,%)	유의도
성별	남자	45(45.0)	41(41.0)	.503
	여자	56(55.0)	60(60.0)	
연령	20대	16(16.0)	14(14.0)	.703
	30대	43(43.0)	38(38.0)	
	40대	22(22.0)	31(31.0)	
	50대	17(17.0)	15(15.0)	
	무응답	3(3.0)	3(3.0)	
가계 총수입	~ 200만원 미만			.469
	200만원 ~ 300만원 미만	35(35.0)	26(26.0)	
	300만원 ~ 400만원 미만	26(26.0)	24(24.0)	
	400만원 ~ 500만원 미만	7(7.0)	24(24.0)	
	500만원 ~ 1000만원 미만	17(17.0)	13(13.0)	
	1000만원 이상	13(13.0)	8(8.0)	
	무응답	3(3.0)	2(2.0)	
	무응답			
직업	농축산업	2(2.0)	4(4.0)	.111
	자영업/가족봉사	2(2.0)	5(5.0)	
	판매/서비스직	23(23.0)	29(29.0)	
	사무/기술직	2(2.0)	1(1.0)	
	기능/생산직	30(30.0)	26(26.0)	
	전문/관리직	6(6.0)	5(5.0)	
	전업학생	10(10.0)	7(7.0)	
	주부	23(23.0)	20(20.0)	
	무직	2(2.0)	3(3.0)	
	무응답	1(1.0)	1(1.0)	

다음의 내용은 [표 1]에서 제시하였다.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검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서와 같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긍정적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동질성을 가진 집단으로 [표 2]에서 나타났다.

표 2. 사전 두집단의 동질성 검사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긍정적 태도	실험군	100	2.28	0.58	-.145	99	.885
	통제군	100	2.29	0.52			
사회적 거리감	실험군	100	2.62	0.24	-1.143	7	.291
	통제군	100	2.65	0.22			

\*p<.05 \*\*p<.01 \*\*\*p<.001

3. 자기평가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감소에 미치는 효과

사회적 거리감 영역에서는 수업초기에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이 그렇지 않은 통제집단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점수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실험집단의 사전평가에서 사회적 거리감의 평균은 2.62 (SD=0.24)이었다. 이는 8점 만점의 척도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로, 학습자들이 정신장애인에 대해 정서적·심리적 측면에서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본 교과목 수업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 클라이언트로서의 권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한국적 특성 등에 대한 주관적인·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하였다. 그 결과, 실험집단의 사후검사 시 평균이 3.46점(SD=0.12)까지 향상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였다(p<.001).

통제집단에서도 사전-사후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01). 그러나 상대적으로 실험집단 수준의 높은 변화정도(<.001)와는 다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통제집단의 경우에는 사전검사에서는 2.63점으로 나타났는데 사후검사에서는 3.12점으로 상승되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집단 점수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감에서는 수업초기에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이 자기평가를 비실행한 통제집단 보다 평균 점수가 훨씬 더 높게 상승하는 현저한 변화를 보였다. 이를 통해, 수업초기의 자기평가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표 3]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3. 자기평가가 사회적 거리감에 미치는 효과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사회적 거리감	실험군	사전	100	2.62	-13.60	7	.000***
		사후	100	3.46			
	통제군	사전	100	2.63	-5.369	7	.001**
		사후	100	3.12			

\*p<.05 \*\*p<.01 \*\*\*p<.001

#### 4. 자기평가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긍정적 태도변화에서는 자기평가를 실시한 실험집단과 비실시한 통제집단 모두에서 사전·사후 간의 유의미한 점수변화는 있었고 실시집단이 더 높은 수준의 변화를 보였으나 두 집단 간의 변화정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실험집단에서의 사전평가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는 2.38 (SD=0.58)이었다. 본 척도는 점수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점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5점 만점의 척도에서 평균 이하의 점수를 나타내서 학습자들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함께 공존해야함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사전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교과목 수업에서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정신건강 이념 및 사회복지 및 사회적응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하였고, 그 결과, 사후검사시 실험집단의 경우 평균이 1.79 (SD=0.4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p<.01).

한편, 통제집단의 경우에도 사전조사에서는 2.34점이었고 사후평가에서는 평균 1.76 (SD=0.65)로 나타나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1). 이러한 결과는 두 집단 모두 본 교과목 수업을 통하여 긍정적인 태도점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는 반면, 수업초기의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분명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표 4]에서 나타났다.

표 4.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유의 확률	
태도	실험군	사전	100	2.38	0.57	2.92	99	0.1**
		사후	100	1.79	0.47			
	통제군	사전	100	2.34	0.52	2.83	100	
		사후	100	1.76	0.65			

\*p<.05 \*\*p<.01 \*\*\*p<.001

#### VI.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원격교육의 전공수업에서 수업초기 학습자의 자기평가가 갖는 수업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때 수업효과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거리감 및 긍정적인 태도 변화로 측정하였다.

본 교과목인 정신보건사회복지는 학습자에게 정신보건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바른 태도를 함양시켜서, 궁극적으로 정신 보건 실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함양시키는데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궁극적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제공해야할 통찰이 사회취약계층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고 사회적 편견이 팽배한 집단이 바로 정신장애인 집단이라는 것[16][17]과 그러한 편견이 학습자 자신에게는 어느 수준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목 학습을 통해 학습자들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적인 정서와 태도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거리감 및 태도를 내재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학습 목표이자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비판견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거리감, 긍정적인 태도 등을 조성하기 위해 수업초기 시점에서 자기인식 및 평가를 시행하여 자기수준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여 이러한 자기인식이 변화자극제 또는 매개체가 되도록 격려하고 수업효과를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적 변화를 나타내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변인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 사전·사후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자기평가를 실시한 집단과 비실시한 집단 간에 변화정도의 차이는 상당한 차이로 제시되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로 나타났다. 둘째, 반면, 정신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는 수업초기의 자기평가를 시행한 실험집단과 시행하지 않은 통제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사후 간의 변화 정도에 있어서 수업초기 자기평가를 실시한 실험집단에서 통제집단보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서 및 태도 측면’에서 사전·

사후 점수의 변화 차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자기평가가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의 가치나 내용을 정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온라인 교육에서의 수업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인화된 자기점검학습의 한 방법으로써의 수업초기 학습자의 자기평가 적용에 대한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초기에 자기평가를 실시하는 구조화된 교수설계의 도입이 필요하다. 면대면 교육이 아닌 원격교육 일수록 학습자 자신을 스스로 각성시키고 자각시키는 과정이 더욱 필요하다. 자기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기 자신의 지식 및 인식 변화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다[18]. 시점에 있어서는 자기평가가 수업 전반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특히 학습초기의 자기평가의 기회는 학습자로 하여금 본격적인 학습 진입에 앞서 자기반성·자기발전의 자료를 수집해 볼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스스로 자기 학습동기를 높이고 자신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19][20]. 둘째, 자기평가는 각 교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시되어야 한다[22][23]. 예를 들어, 수학 교과와 같은 기초 교과목과 철학 및 응용과학 기반의 교과목에서의 자기평가의 목표와 내용은 상당히 다르다. 수학 및 기초교과목은 정답을 정확히 제시하거나 명확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등의 인지적인 요소가 주로 강조되는 반면, 본 교과는 명확한 지식 뿐만 아니라 자기반성적 요소에 기반한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매우 중시하는 교과목이 이다. 이런 특성을 가진 교과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측면 등의 다양한 측면들을 점검하는 계기와 시점이 필요하다. 특히, 본 교과와 같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받는 특정 대상에 대해 전문적인 시각과 태도를 함양시켜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인 교과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자기점검 및 모니터링 기제를 갖도록 하여 자기 주도하의 정서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교과목 특성에 대한 자기주도학습

의 접근방식은 다양하고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23].

**참 고 문 헌**

[1] 황현아, 임한규, "개인화된 자기조절 학습 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콘텐츠학회, 제5권, 제3호, pp.24-35, 2005.

[2] 신민희, "자기조절 학습환경이 학습성취와 동기에 미치는 영향", 교육공학, 제14권, 제3호, pp.177-204, 1998.

[3] 김지자, "자기주도적 학습연구 어디까지 와 있는가", 교육월보, 제17권, 제9호, pp.37-39, 1998.

[4] 최규련, 정봉수, "자기주도학습력 증진을 위한 학습계획과 평가전략 탐색", 교육학논총, 제29권, 제1호, pp.19-42, 2008.

[5] 김재은, 자기평가 학습전략이 아동의 지속성 재생 기억과 일반화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6] 이승진, 자기주도적 학습에서 자기평가전략이 학업성취도와 자기주도학습력에 미치는 효과,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7] 김경아, 자기평가를 활용한 수업이 아동의 영어능력과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8] B. J. Zimmerman, *Models of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NY: Springer-Verlag, 1989.

[9] B. J. Zimmerman and M. Martinez-Pons, "Students difference if self-regulated learning : relating grade, sex, and giftedness to self-efficacy and strategy use," *J.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82, No.1, pp.51-59, 1990.

[10] 백순근, *수행평가의 원리*, 서울:교육평가사, 1998.

[11] J. M. O'Malley and L.V. Pierce, *Performance and portfolio assessment for language minority student*, Washington DC:National clearing hou

se for bilingual education, 1992.

[12] M. Harris, "Self-assessment for language learning in formal setting," *ELT J.*, Vol.51, No.1, pp.12-20, 1997.

[13] 지화영, *자기평가를 이용한 듣기전략 훈련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4]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사회적 오점 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적 장애인 및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7권, 제1호, pp.119-136, 2001.

[15] 이주훈, 이충순, 황태연, 한광수, 이영문, "수서-일원 지역 주민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 *용인정신의학보*, 제3권, 제2호, pp.188-202, 1996.

[16] 이소희, *자기점검표 및 자기평가지를 이용한 자기관리 증제가 전공과 중도장애 학생의 제과 생산량 및 기술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17] J. A. Sirey, G. S. Bruce, D. A. Alexopoulos, S. J. Perlick and S. B. Meyers, "Perceived stigma and patient-related severity of illness as predictors of antidepressants," *Psychiatric Services*, Vol.52, No.12, pp.1615-1620, 2001.

[18] E. Kusnic and M. L. Finley, "Student self-evaluation : An introduction and rationale. New direction for teaching and learning," *Vol.56, No.1*, pp.23-43, 1993.

[19] G. Thornicroft, D. Rose, A. Kassam and N. Sartorius, "Stigma: ignorance, prejudice or discriminatio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Vol.190, pp.192-193, 2007.

[20] M. Harris, "Self-assessment for language learning in formal setting," *ELT Journal*, Vol.51, No.1, pp.12-20, 1997.

[21] 서보순, 황혜익, "유아특수교사의 자기평가척도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3호, pp.315-337, 2010.

[22] 김순남, 황향숙, "창의성 개발 교수행위에 대한 교사 자기평가 연구", *한국교육논단*, 제5권, 제2

호, pp.1-24, 2006.

[23] 박민정, "의학교육과정에서 PBL 수업의 적용 효과 연구: 수업후기와 자기평가 및 수업과정 평가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제28권, 제2호, pp.225-253, 2010.

저 자 소 개

전 혜 성(Hye-Seong Jeon)

정회원



- 2007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문학박사)
- 2005년 7월 ~ 현재 : 서울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원격교육, 정신보건사회복지, 가족